

최근 원자재난의 원인 진단과 전망 및 대책

이 원 우 /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국제 1차 상품가격은 2003년 하절기부터 급격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미 상당수준에 있던 석유가격 외에 철강제품 및 관련 원자재, 석탄 등의 가격이 급격한 상승세를 보여 왔다. 특히 철 스크랩 및 일부 철강제품은 품귀현상을 빚으면서 건축·건설, 자동차 부품 제조업 등에서는 조업차질을 야기하고 있다.

본고는 이러한 원자재난의 원인을 진단하고, 그 해소가능성을 검토함으로써 국제 원자재 시장의 향방을 타진하였다. 또한 그간의 사태진전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을 토대로 대처방안을 모색하여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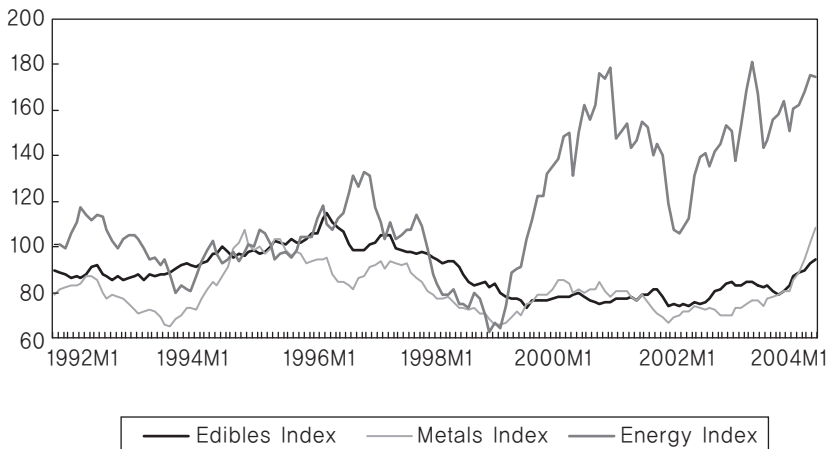
1. 가격변동 추이와 영향

원유를 제외한 국제 1차 상품가격은 2000년도 이후

세계경제의 침체로 작년 상반기까지도 비교적 낮은 수준을 유지하여 왔다. 곡물 및 금속의 경우는 2001년 연말에서 2002년 중반까지 추가로 하락하며 상당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그 이후 정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점차 상승 추세로 반전되었다. 특히 2003년 중반 이후부터 본격적인 가격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반면 1999년 이후 에너지 가격지수의 변화 추세는 다른 원자재 가격지수와는 달리 꾸준한 상승 추세 속에 커다란 기복의 등락을 발견할 수 있다.

우선 현재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철 스크랩의 경우, 수입가격이 2002년 초 톤당 100달러 수준에서 2003년 초에는 180달러 수준으로 상승하였으며, 그 후 잠시 진정세를 보이다가 2004년 2월에는 330달러를 넘어서는 초강세를 보이고 있다. 철 스크랩에 비해 그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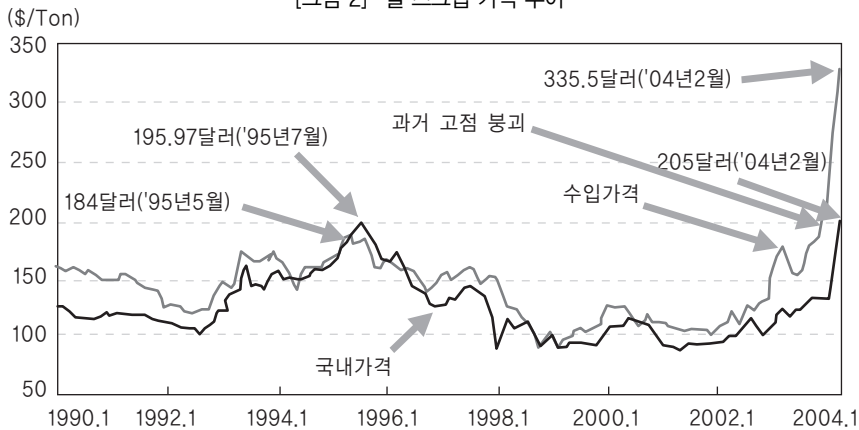
[그림 1] IMF 상품가격지수 추이 (1995=100)



폭이 적기는 하지만 철광석 및 원료탄 가격도 큰 폭으로 오르고 있고, 철강생산과 관련이 있는 니켈 및 아연의 가격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니켈의 경우는 철 스크랩과 마찬가지로 2002년 초부터 상승세를 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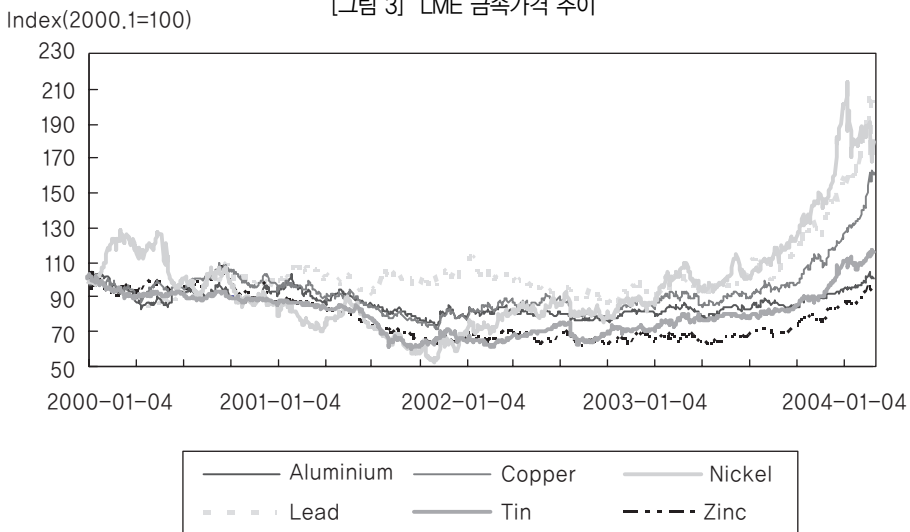
이기 시작하여, 2003년 중반부터 급격하게 상승하였다. 2004년 1월 초에는 2003년 2/4분기 평균대비 무려 112%나 상승한 때도 있었으나, 이후 진정되는 추세를 보여 2월 평균가격은 81% 상승을 보이고 있다. 한

[그림 2] 철 스크랩 가격 추이



자료 : 김홍식, "궤도를 이탈한 철강 원부자재 수급대책은 무엇인가?", 『철강보』, 2004. 2. p10

[그림 3] LME 금속가격 추이



이슈진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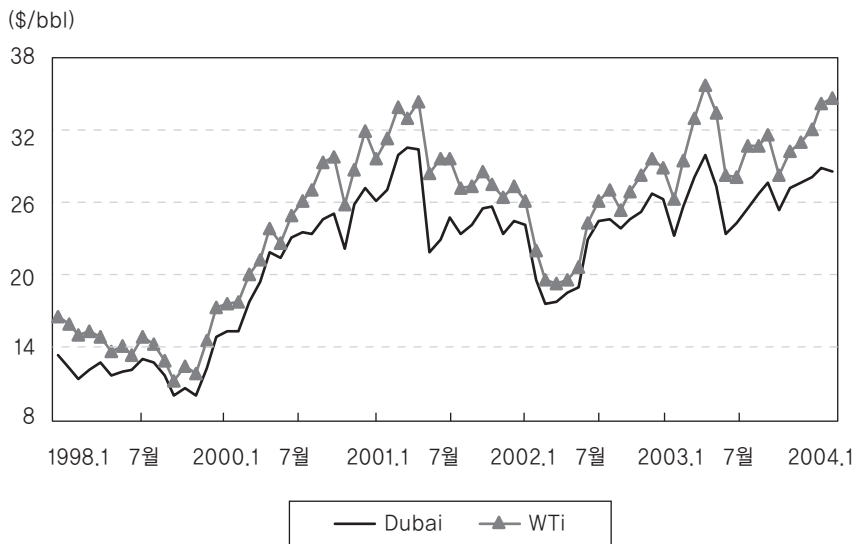
편 아연의 경우도 같은 기간 41%의 가격상승을 나타내고 있다. 이외에 알루미늄, 동, 연, 주석 등 기타 금속도 지속적인 가격상승을 보이고 있다. 2003년 2/4분기 대비 2004년 2월의 가격상승률은 알루미늄 22%, 동 68%, 연 95%, 주석 43% 등으로 나타나고 있어 원자재 가격상승이 특정 금속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특히 철강산업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동 및 연의 가격이 크게 상승하고 있다는 점이 특이하다.

한편 원유를 포함한 에너지 가격은 1999년 상반기부터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다가 9.11 테러사태 이후인 2001년 4/4분기부터 2002년 연초에 이르는 기간에 한때 급락세를 보인 이후 다시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주로 원유가격의 움직임에 따른 연동화 현상으로 해석되며, 2002년 상반기 이후 연말까지 이라크에 대한 미국의 공격 가능성 고조, 그리고 2003년 3월 이라크 전쟁 발발 등으로 인한 전쟁 리스크 프리미엄이 원유시장을 줄곧 압박하였기 때문이었다. 대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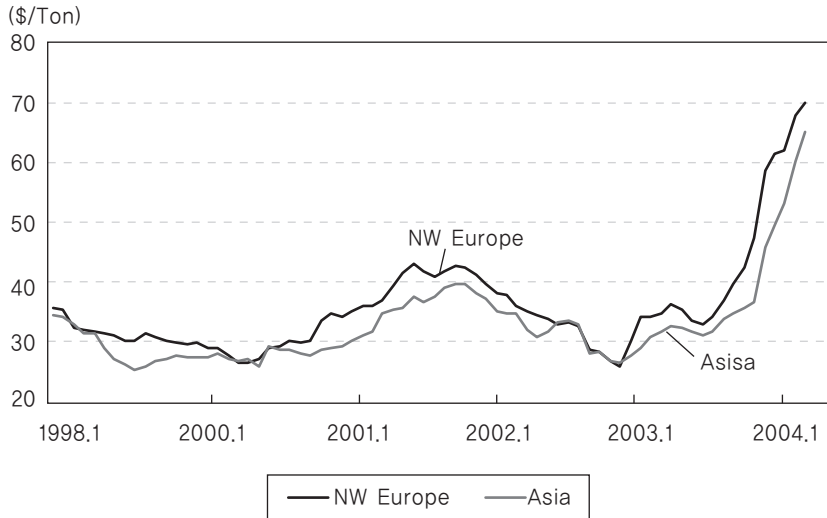
크 전쟁 이후 기대를 모았던 이라크 석유산업의 복구 및 생산 회복은 계속되는 저항세력의 공격과 혼란 등으로 예상보다 크게 지연되면서 유가는 2003년 3/4분기 이후 다시 가파른 상승세를 지속해 왔다. 특히 달러화 약세로 인한 수익성 악화에 반발하는 OPEC 산유국들이 감산카드를 앞세우자 2003년 연말 이후 최근까지도 원유가격은 배럴당 최고 38달러(WTI 기준)를 기록하며 전쟁발발 이전보다 높은 가격으로 치솟고 있다.

석탄의 가격도 2003년 하반기부터 급등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1999년 하절기 이후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던 석탄가격은 2001년 중반 이후 하락하면서 2002년 8월에는 톤당 26달러 수준(연료탄 기준)까지 떨어졌다. 그러나 그 이후 상승세로 돌아섰고 2003년 상반기 동절기가 끝나갈 무렵 다소간의 조정국면을 보이다가 하반기에 들어서면서부터 급격한 가격상승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2003년 8월 대비 최근 2004년 2월의 가격 상승률은 유럽지역의 경우 무려 169%, 그리고 아시아지역의

[그림 4] 원유 현물가격 추이



[그림 5] 연료탄 현물가격 추이



자료 : ICR coal statistics monthly, March 2004, p2

경우는 144%에 이르고 있다. 2003년 이후 석탄가격 상승에서 한 가지 눈여겨 볼 사항은 유럽지역 가격이 아시아지역 가격을 선도하고 있다는 점일 것이다.

이러한 1차 상품가격의 상승은 원자재 사용업체에 우선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야기할 것이다. 원자재의 확보가 어려울 경우 조업을 축소해야 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고, 원자재 가격인상분을 제품가격에 100% 반영하기도 경쟁이 심한 경우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관련 가공제품을 사용하는 업체들에서 연쇄적으로 발생될 것이다. 업종별로 보면 조선업, 자동차 부품 및 금속제품 제조업,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전기기계 및 장비 제조업 등에 대한 타격이 비교적 높으며, 건설 및 건축 분야에서의 어려움도 상당할 것이다. 석유 등 에너지가격의 상승에 크게 영향을 받는 업종은 석유화

학분야이며 도자기 및 시멘트, 수산업, 운수업 등도 상당한 영향을 받는다. 특히 석유나 가스의 경우에는 국민생활과 직결되고 있어 그 영향이 매우 크다.

주요 원자재 가격이 10% 상승할 경우 물가상승은 원유를 제외하고는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원유 수입가격이 10% 상승하는 경우, 생산자물가는 0.61%p, 소비자물가는 0.37%p 상승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같은 폭의 가격 상승 시 천연가스는 0.13%p, 유연탄은 0.07%p, 철강은 0.14%p, 비철금속은 0.12%p 등의 생산자물가 상승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어¹⁾ 개별품목 단위로는 석유에 비해 상당히 낮은 편이지만, 거의 모든 원자재가 동시에 가격이 상승할 경우는 매우 큰 물가압력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1) 한국경제연구원, 『국제원자재 가격의 급등과 시사점』, 2004. 1
산업자원부, 『주요원자재 수급동향 및 수급대책』, 2004. 2. 17

2. 가격상승의 주요 원인

원자재 가격의 상승은 ①중국의 고성장에 따른 수입 수요 급증, ②세계경기 회복에 따른 수요증가, ③기후여건의 악화, ④해상운임의 상승, ⑤미국 달러화의 약세, ⑥ 생산국의 사건 사고 및 파업에 의한 공급교란 등에 주로 기인하고 있으며, 여기에 심리적 요인 및 투기적 요인이 가세되어 가격 상승을 더욱 확대시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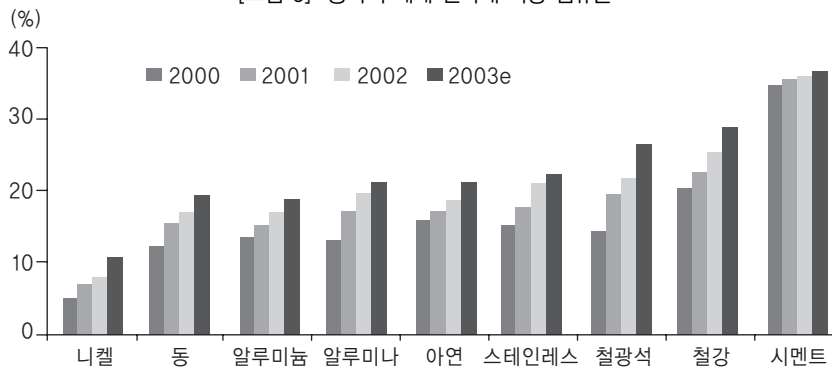
중국은 지난 1990년대에 연평균 10%대에 이르는 경제성장을 이룩하였으며, 2000년대에 들어서도 10%에 가까운 고도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2002년 8.0%의 성장을 이룩하였으며 2003년에는 9.1%의 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와 같은 급속한 경제성장에 추가하여 베이징 올림픽 및 상하이 세계박람회 준비로 건설 및 설비 투자가 특히 2000년대 들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철강, 니켈, 구리, 알루미늄, 연 등 건설·건축 및 자동차용 원자재 수요가 급증하면서 중국의 수입이 30% 이상 늘어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철강의 경우에는 2002년도에 42% 수입물량이 증가한데 이어, 2003년도에 무려 48%의 수입증가율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같은 엄청난

물량의 수입증가로 중국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2003년 현재 대부분의 원자재에 대해서 20%대를 넘어서고 있다. 특히 주택 및 사회기반시설 건설의 필수재인 시멘트의 경우 수요 증가율은 여타 원자재에 비해 낮지만 세계시장 점유율은 무려 40%대에 육박하고 있다.

둘째, 세계경기의 회복 역시 원자재 수요증가의 주요한 요인이다. 미국의 경우 2003년 3/4분기 이후 자동차 수요가 증가하고 가전 및 주택 건자재의 생산증가로 철강제품 거래가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2003년 11월 미국의 제조업 지수는 20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였다. 이 결과 2003년도 미국의 경제성장은 3.1%에 달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일본 역시 오랜 침체에서 벗어나 2003년도에 2.7%의 성장을 이룬 것으로 보이고 있다. 이 결과 OECD 경제성장률은 2002년 1.4%에서 2003년 2.1%로 높아진데 이어 2004년에는 3%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²⁾. 이러한 선진국의 경제회복은 중국 등 개도국의 원자재 수요증가와 함께 세계 원자재시장을 압박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셋째로 기후여건의 악화가 곡물 작황뿐만 아니라 에너지에 대해서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2003년 여름

[그림 6] 중국의 세계 원자재 시장 점유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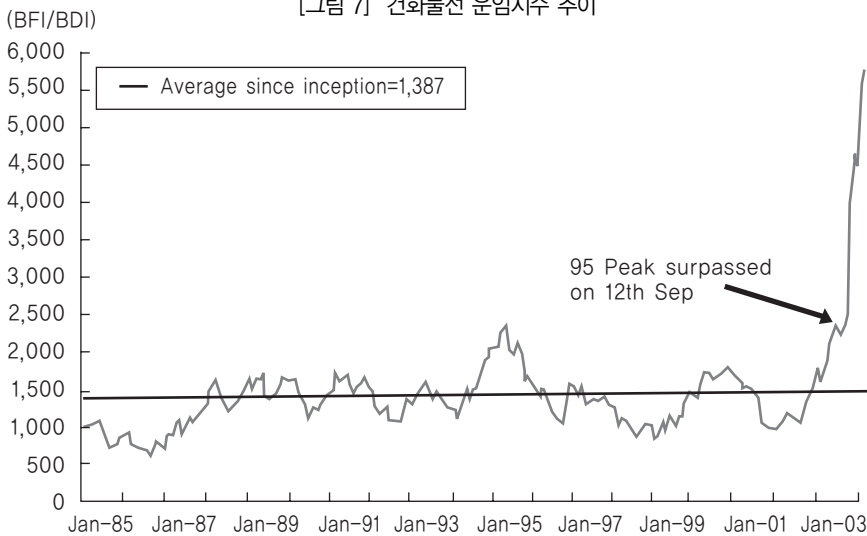
자료 : 한국은행, 『국제원자재 가격의 최근 동향과 향후 전망』, 2004. 2. 9

철 유류대륙을 휩쓴 혹서(酷暑)때문에 전력소비가 크게 증가하였으나, 가뭄으로 수력발전량이 감소하여 석유, 가스, 석탄 등의 소비가 크게 증가되었다. 이에 추가하여 원자력 발전소가 혹서로 덥혀진 강물온도를 규제치 이하로 낮출 수 없어 냉각수의 배출이 어렵게 되자, 원자력 발전소의 가동을 중지하는 사태로까지 발전되었다. 일본의 경우에도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성 점검을 위해 원자력 발전소를 정지시키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전전은 석유, 가스, 석탄 등의 수입 증가를 야기하였으며, 이로 인해 에너지 가격, 특히 석탄가격의 상승이 2003년 하절기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넷째 해상운임의 급격한 상승이 원자재 가격상승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단위 부피당 가격

이 낮은 상품의 경우 해운임 상승은 수입가격 상승의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건화물 선박 운임은 2002년 연말부터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여 2003년 9월에는 1995년의 최고치를 경신하였고(BFI/BDI 기준), 그 이후 더욱 급격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해상운임 상승 역시 중국의 기여도가 매우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중국의 제철능력 확장으로 철광석 수입이 2000년의 70백만 톤에서 2003년 145백만 톤으로 확대되었으며³⁾, 철강제품, 철 스크랩, 곡물 등의 수입도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이 결과 2003년 중국의 건화물 수입량은 2000년과 비교하여 2배로 증가하였다. 세계적으로도 2003년도 한 해에만 건화물 해상 수송물량이 90-95백만톤 증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⁴⁾. 이러한 수송물량 증가는 중국의 철광석 및 철강 수입증가

[그림 7] 건화물선 운임지수 추이



주 : BFI/BDI=Baltic Freight Index/Baltic Dry Index
자료 : SSY, The changing freight market, March 2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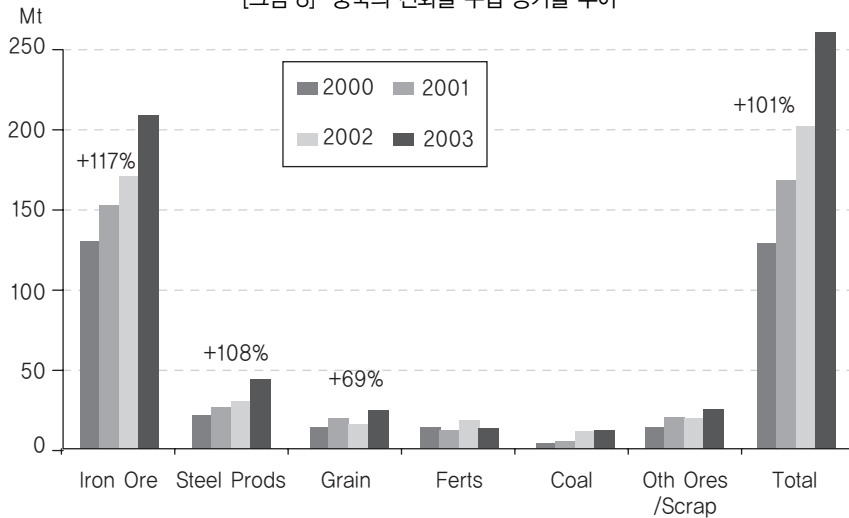
2) World economic prospects - Monthly review(OEF, March 2004), p2

3) International coal report(20 October 2003), p.3

4) The changing freight market(SSY, March 2004)

이슈진단

[그림 8] 중국의 건화물 수입 증가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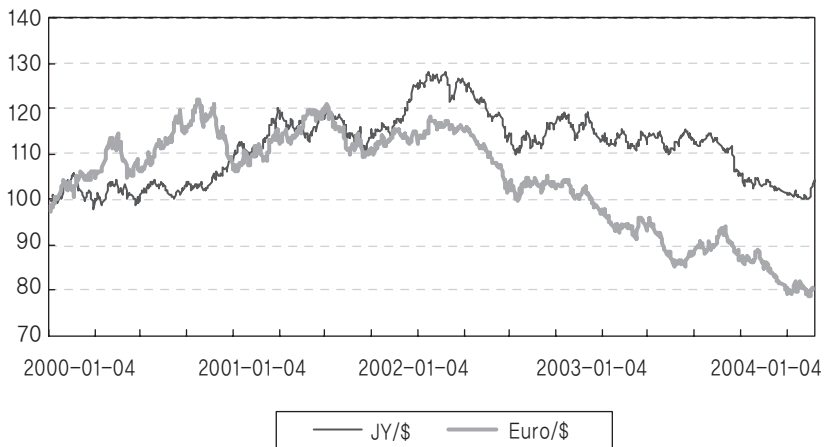
자료 : SSY, The changing freight market, March 2004

(54%), 중국의 곡물수입 증가(10%), 일본의 연료탄 수입증가(8%), EU의 연료탄 수입증가(5%정도) 등에 주로 기인하고 있다. 이에 추가하여 이미 앞에서 언급한 유럽지역의 가뭄 및 기록적인 혹서로 곡물작황이 좋지 않아 전통적 곡물 수출국인 프랑스, 러시아, 우크라이나 등의 수출이 크게 감소하고, 이 결과 유럽인근지역

수입국의 경우 남미 등 원거리에서의 곡물 수입확대가 불가피하였다.

또한 지난 동절기중 중국의 석탄수출 부족에 따른 아시아지역의 원거리 석탄거래 증가도 해운임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물론 근본적으로는 그 동안의 낮은 해상운임으로 건화물 선박의 신규 건조 실

[그림 9] 미국 달러화의 변화추이



적이 저조하였던 것도 중요한 원인이다.

다섯째, 미국 달러화의 하락은 원유를 포함하여 원자재 가격상승의 주요 요인이다. 미국 달러화는 2002년 1/4분기 이후 꾸준히 하락하는 추세이다. 특히 2003년도에 들어서면서 더욱 가속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04년 2월 현재 미국 달러화 가치는 2002년 1/4분기와 대비하여 일본 엔화에 대해서는 20% 하락하였으며 Euro화에 대해서는 무려 31%나 하락하였다. 이러한 미국 달러화의 가치하락은 원자재의 달러화 표시 수출가격 상승의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원유의 경우 모든 국제거래가 달러화를 기준으로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원유수출에 재정수입의 대부분을 의존하고 있는 OPEC 산유국들은 달러화 약세로 재정수익에 큰 차질을 받게 되자 그 동안 배럴당 \$22 - \$28의 유가밴드제도에도 불구하고 감산이라는 카드를 내세우며 2003년 9월 이후 최근까지 의도적으로 고유가를 유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여섯째, 예기치 않는 사고 및 파업 등으로 인한 공급제한 사태가 가뜩이나 어려운 원자재 공급여건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안전점검을 위한 일본의 원자력 발전소 가동정지와 흑서로 인한 유럽에서의 원자력 발전소 가동정지가 화석연료의 수요확대를 초래하였다면, 공급측면에서는 중국의 잇단 탄광사고가 2003년 8월 산서지역 탄광의 가동정지를 초래하였고, 이 결과 석탄공급 부족사태가 촉발되었다. 동의 경우는 인도네시아 광산의 붕괴사고, 칠레 및 캐나다 광산에서의 파업 등이 동 공급의 차질을 빚게 하였으며, 니켈의 경우는 세계 니켈수요의 10%를 담당하는 Inco사의 Sudbury광산이 2003년 6월 초부터 무려 13주에 걸친 파업으로 조업을 중단하면서 세계 니켈가격 상승의 폭을 확대시켰다.

끝으로 여타 경우에서와 마찬가지로 투기적 및 심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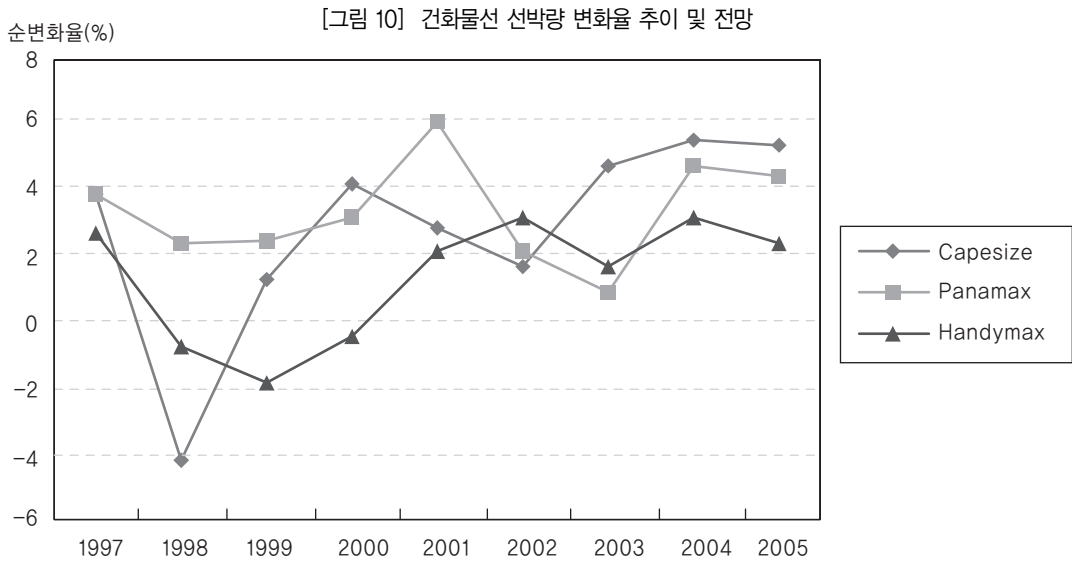
적 요소도 원자재 가격 상승폭을 확대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가격상승 및 공급불안에 대비해 원자재를 미리 확보하려는 관련업체 및 거래상의 움직임이 가뜩이나 어려운 수급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또한 투자자들도 달러화 가치하락에 따른 리스크 관리를 위해 달러표시 자산을 원자재로 옮기는 행태를 보이는데 이 또한 수급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요인이다.

3. 시장 전망

최근의 원자재난과 관련한 요인 중 당장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은 그리 많지 않다. 기후여건과 관련된 부분은 기온이 평년수준을 회복한다면 해소될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요인인 중국의 원자재 수입수요 증가 부분은 향후로도 해소를 기대하기 쉽지않을 전망이다. 다행스러운 것은 최근 중국정부가 과열된 경기를 완화시켜 경제를 연착륙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하려 한다는 소식이다. 세계경제 회복 및 달러화 약세가 가까운 시일안에 큰 변화를 보일 것 같지는 않지만 미국경제가 본격 회복될 경우 하반기에는 이자율 상승과 함께 달러화 약세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기후여건의 평년수준 회복은 원자력 발전소의 정상운동을 가능하게 하여 석유, 석탄 등에 대한 수요를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며, 또한 곡물거래의 거리를 감소시켜 해운임의 상승억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에 추가하여 건화물선의 건조증가 추세는 근본적인 해운임의 안정화를 유도할 전망이다. 특히 장거리 운송선인 Capesize의 선박량이 2003년 4.8% 증가한 데 이어 2004년과 2005년에는 5% 이상의 증가가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기후 등의 영향으로 원자재 수송 수요가 계속 강세를 보일 경우 해운임의 안정이 급년

이슈진단



자료 : SSY, The changing freight market, March 2004

중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중국의 원자재 수입은 향후로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철강 수요가 2003년의 2.6억 톤 수준에서 2004년에는 2.9억 톤 수준으로 늘어날 전망이다⁵⁾, 제철소 건설 및 확장으로 인한 철광석 수입도 2003년의 145백만 톤에서 2005년에는 182백만 톤으로 확대될 전망이다⁶⁾. 그러나 이러한 증가 전망도 과거에 비해서는 그 증가율이 낮은 것으로 공급측면에서의 대응에 다소간의 여유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제철용 원료탄의 경우 대부분의 수요증가를 중국내 생산에서 충당하려 할 것이므로 순수출의 감소가 예상되고 있다. 실제로 2003년도 원료탄 수출은 13백만 톤으로 2002년과 비교해 변화가 없었지만 수입은 30만 톤에서 320만 톤으로 증가하여 순수출이 3백만 톤 감소하였다.

중국과 함께 향후 인도의 원자재 수입증가도 세계 원자재 시장을 압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전망이다. 물론 중국에 비해 인도의 원자재 수입규모는 크게 낮은 수준이기는 하지만, 철강생산이 2001년도에 25백만 톤 수준을 넘어선 이후 2003년도에는 28백만 톤 수준을 넘어섰으며, 금년에는 30백만 톤 수준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각종 철강관련 원자재 및 석탄의 수입이 증가되어 세계 원자재 시장을 경색시키는 한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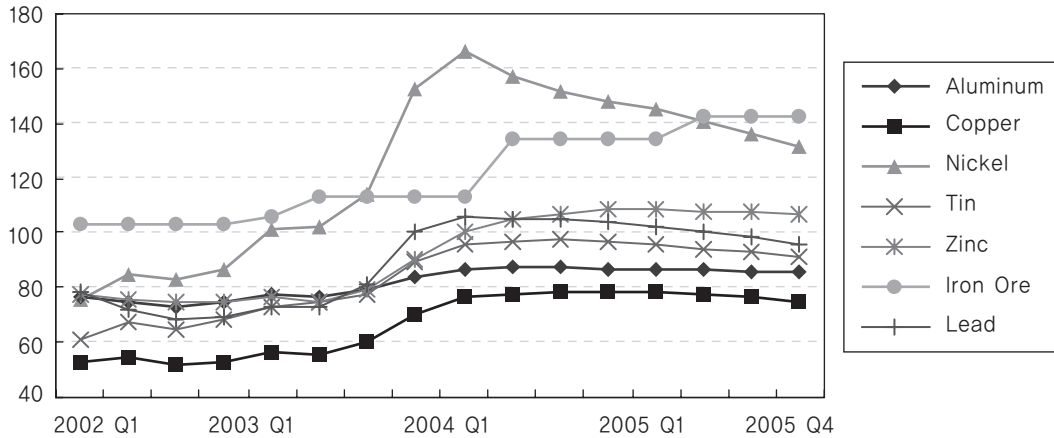
한편 달러화 가치는 세계정세의 변화 및 미국내 이자율의 변동에 따라 회복을 보일 전망이나,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와 재정적자를 감안할 때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기는 당분간 어려울 전망이다. 또한 하반기 이후 미국의 경기회복이 본격화된다면 이자율 인상과 함

5) The changing freight market (SSY, March 2004)

6) International coal report(20 October 2003), p.3

[그림 11] 주요 금속가격 전망(OEF)

Index(1995=100)



자료 : OEF, OEF commodity price monitor, Feb. 2004, p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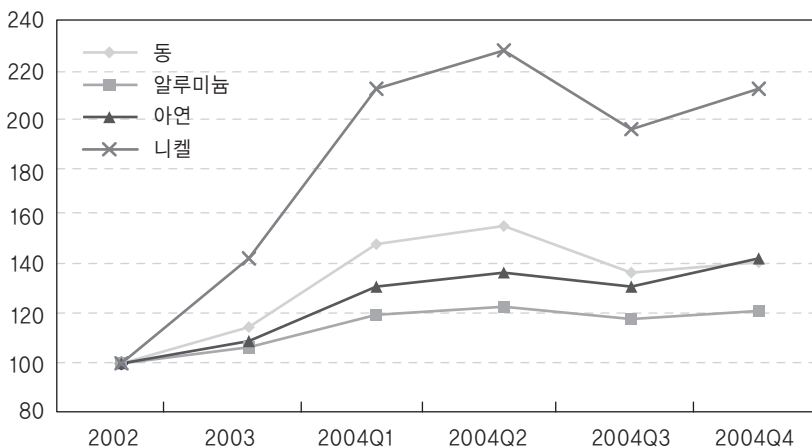
깨 달러화 약세 기조가 변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전망되고 있다.

이상의 여건변화 가능성을 감안할 때 세계 원자재 가격은 당분간 강세를 유지할 전망이다. 예측기관에 따라 다소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니켈은 상당히 높은

가격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며, 철광석 및 원료탄 가격도 계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알루미늄, 동, 연, 아연, 주석 등도 당분간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나 장기적인 견지에서 볼 경우 크게 높은 수준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이들 금속중 1995년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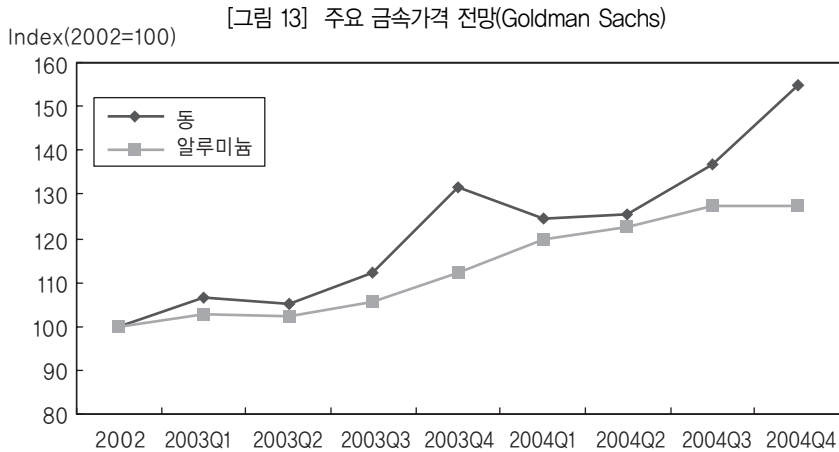
[그림 12] 주요 금속가격 전망(Merrill Lynch)

Index(2000=100)



주 : 2004년 1월 29일 전망치로 『국제원자재 가격의 최근 동향과 향후 전망』(BOK, 2004. 2. 9)의 데이터를 재처리

이슈진단



주 : 2004년 1월 22일 전망치로 『국제원자재 가격의 최근 동향과 향후 전망』(BOK, 2004. 2. 9)의 데이터를 재처리

을 넘어섰거나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는 것은 연 및 아연뿐이다.

이러한 전망은 현재의 원자재난이 주로 철강과 관련이 있음에 기인하고 있다. 즉 철광석, 고철, 철스크랩 및 원료탄과 스테인레스 스틸의 주 원료중 하나인 니켈의 가격이 크게 상승하였고, 향후로도 이들 원자재 가격이 중국의 수요증가 및 세계경제 회복에 힘입어 강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아연 가격의 상승도 철강제품 수요증가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한편 원유가격은 3월 말에 열리는 OPEC 총회를 앞두고 미국 서부텍사스중질유 가격이 배럴당 38달러를 넘는 등 초강세를 보이고 있으나 가격 이외에 수급불안을 야기시키는 특이 사항이 발견되지 않고 2/4분기 비수기에 들어서고 있기 때문에 3월 하순 이후에는 약세로 전환될 전망이다. 다만 유가폭락을 우려하는 OPEC의 시장 견제심리와 미국의 휘발유 시장 불안요인이 앞당겨짐으로 인하여 하락 폭을 크지 않을 전망이다.

연료탄의 경우, 가격 상승의 상당부분이 해상운임 상승에 기인한다는 점에서 해상운임의 안정과 함께 연료탄 가격도 안정될 전망이다. 연료탄의 세계 거래량 증가도 금년에는 2003년의 43백만 톤에 비하여 크게 낮은 19백만톤에 불과할 전망이며, 2005년에는 10백만 톤수준의 거래량 증가가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⁷⁾. 따라서 돌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연료탄 가격은 해상운임의 안정화 이전에 안정기조에 접어들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불확실한 요인도 상당수준 잠재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및 중국에서 국내소비가 증가하고 있고, 높은 원료탄 가격이 주요 수출국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연료탄의 수출 증대를 지연시킬 수도 있다. 특히 전력부족 사태를 겪고 있는 중국이 발전용 연료탄 사용을 확대하면서 수출의 증대가 매우 제한적일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다. 유럽의 경우는 폴란드의 석탄수출 감소 추세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7) McCloskey, Asian steam coal market outlook, March 2004

4. 대응방안의 모색

국제 원자재 가격의 상승 및 확보 난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는 그간 수차례에 걸쳐 긴급대책을 강구하였다. 할당관세 적용품목을 확대하여 관세를 인하하고, 정부 비축물량 방출, '원자재수급협의회' 운영을 통한 철강재 수급조정 강화,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원자재 유통에 대한 지도 및 단속 강화 등을 추진하여 왔으며, 공급물량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철 및 철근에 대해서는 금년 3월8일부터 수출제한제도를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⁸⁾. 이러한 긴급대책은 원자재난이 계속되는 한 지속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원유의 경우, 지난해 미-이라크의 전쟁 상황과는 달리 수급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은 아니고 2/4분기 이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단기대책으로는 소비절약 강화와 실적을 중심으로 하는 대응책 마련과 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장기적인 대책으로 거론되는 사항은 정부 비축물량의 확대, 해외자원개발의 확대, 자원산업의 고부가가치화, 헛지 전략의 도입, 에너지 저소비형 산업구조로의 전환 등이 있다⁹⁾.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해외 상품시장에 대한 분석과 꾸준한 모니터링이다. 중국의 제철 및 제강 시설 건설계획에 대해서 좀더 심도 있는 분석 및 모니터링이 이루어졌다면 보다 일찍부터 대책의 강구가 가능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수입비중이 높은 국가나 국제시장에 대한 영향이 큰 국가는 여건변화 가능성에 대해 지속적인 검토 및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또한 이들 국가와는 지속적인 자원외교를 펼치는 것이 요구된다. 특히 공급자가 독과점적인 위치를 점하

거나 국가의 개입가능성이 큰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비축 및 재고 확대는 유사시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석유 및 주요 금속을 대상으로 현재 추진되고 있는 대책이다. 석유의 정부비축은 현재의 50일분 수준에서 2008년까지 72일분으로, 가스 저장설비는 연간소비의 9%에서 12%로(2015년), 그리고 조달청이 관리하는 1차 상품은 현행 수입수요의 20일분을 점차 확충하고 대상품목도 확대할 계획이다. 그러나 비축물량 확대에는 많은 재원과 비용이 수반되므로 대상품목의 선정 및 비축수준에 대해서 신중하고도 신축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또한 비축 및 방출 시기의 선택도 효과 극대화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므로 융통성 있는 시행체제의 확립이 요구된다.

1차 상품에 대한 장기계약 및 해외자원개발의 확대도 원자재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매우 중요한 방안이다. 그러나 판매자 시장(Seller's Market)의 상황에서는 각종 계약조건이 구매자에게 불리한 것이 일반적이어서 계약체결에 대단한 주의가 필요하다. 1970년대 하반기에 진출한 해외자원개발 사업이 대부분 실패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해외자원개발의 경우에는 특히 장기적인 안목에서 추진하는 것이 요구된다.

선물 또는 선도거래 참여를 통한 위험부담의 분산도 꾸준히 추진되어야 할 사항이다. 이러한 거래에의 참여는 위험부담의 완화효과뿐만 아니라 국제시장 여건에 대한 신축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하며, 정보를 보다 광범위하게 축적할 수 있도록 하여 시장상황 판단에 크게 기여한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관련 전문가의 육성, 정부의 지속적 배려, 그리고 관련업체 경영층의 이해증

8) 산업자원부, 『주요원자재 가격동향 및 수급대책』2004. 2. 17, 원자재 수급안정대책, 2004. 3. 3

9) 산업자원부, 한국경제연구원, 현대경제연구원 등

진 등이 필요하다.

끝으로 주요 수입국 및 수입사와 협조관계 형성도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협력 초기단계에서는 정보교환에 비중을 두겠지만, 이를 발전시켜 물량의 상호유통이나 비축에서의 협조체제 등을 구축하는 것은 원자재난 발생시 매우 유용한 대처방안이 될 수 있다.

5. 맺는말

최근의 원자재난은 중국의 성장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특히 중국의 건축 및 건설, 제조업 시설 및 설비, 자동차 등에의 투자확대가 철강수요 급증을 불러왔고, 이에 따른 제철능력 확대로 철광석, 고철, 원료탄, 니켈 등의 수입이 증가하면서 현재의 원자재난을 선도하고 있다. 곡물류에 있어서도 일기불순으로 인한 주요 수출국의 작황 부진과 해상운임의 상승이 가격상승의 주요 원인이기는 하지만 중국의 수입증가도 상당한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원유의 경우, OPEC 산유국들의 의도적인 고유가 전략에 특히 미국의 석유수급 여건 악화와 선물시장에서의 투기성 펀드들의 매집 등이 가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중국과 인도의 수입량 증가도 요인으로 지적되었다. 연료탄은 해상운임의 상승과 유럽 및 일본의 원자력 발전소 가동중단에 따른 수요증가가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특히 연료탄 도입가격 상승의 50% 이상이 해상운임 상승에 기인한다는 점에서 해상운임 상승이 연료탄 가격상승을 이끌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할 때 원자재난에 대한 대책은 다른 사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전대책 또는 장기대책이 필요하다. 지금부터라도 주요 원자재 수출국, 원

자재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중국 등 주요국, 해운임 동향 등에 대해서 검토·분석 및 모니터링하고, 이를 토대로 지속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향후의 사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끝”